

데스크시각

김일환



“30분짜리 TV뉴스는 신문에 옮겨 놓으면 1면의 절반 정도를 채우는 데 그칠 겁니다. 이 정도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났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신문은 TV 저녁뉴스의 몇십 배 뉴스를 전합니다. 그것도 깊이와 맥락까지 곁들여서.”

전설적인 텔레비전 뉴스 앵커인 윌터 크로프카이트는 왜 신문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 최강자, 홍보는 인색

한국 신문들은 하루에 적어도 200개 이상의 기사를 게재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문에서 얻는 정보가 자신이 습득하는 지식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있다고 해도 신문뉴스가 대부분 시민들의 유일한 지식공급원인 셈이다. 또 신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일 아침의 기적’을 홍보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간혹 홍보지를 뿌리고 지면에 알리를 게재하고 고차 창간 기념호

에 수줍은 듯 한, 두 페이지정도 할애할 뿐이다. 지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인 홍보태도에 신문업계의 반성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런 자성을 바탕으로 신문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첫

신문 130년 역사로의 초대

단추로 한국 신문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신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바탕 축제를 연다.

한국 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주관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09 신문·뉴미디어 엑스포’(Newspaper EXPO 2009)가 바로 그것이다. ‘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47개 주요 신문사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미디어 최강자로서의 신문의 가치와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독자들에게 지면에서 얻

을 수 없는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매체로서의 신문과 뉴미디어로서의 신문이 함께하는 미래의 신문도 미리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낡 활자 등 과거 신문활자와 서체·판형의 변화, 최초의 신문광고와 시사만평, 신문 역사의 주요 사건 등 신문의 지난 발자취를 참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일러스트, 실물 등으로 꾸며 전시된다.

관형과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시민 저널리즘·기자 블로그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되는 차세대 신문도 그래픽과

실물을 통해 소개된다. 또, 여러 가지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생활 속에서 신문을 읽는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참관객들이 신문 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기자가 취재하는 단계부터 기사 작성·편집·인쇄·발송을 거쳐 독자가 신문을 받아보기까지 시간대별 과정을 일러스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보여준다. 또 참관객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신문(나의 생일 신문)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간인 독립신문 창간호 사본 등도 받아갈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문과 친해지고 신문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NIE

(신문활용 교육)교실도 열린다. ‘NIE 현장수업’은 전문 NIE 강사의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과 중학생 모두에게 NIE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 역사 함께한 57년

전국의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참가하는 ‘우수 보도사진전’, OX 시사퀴즈 등 참관객들이 편안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신문사 외에도 종이, 잉크, 윤전기 등 신문 제작과 관련된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이며, 각종 뉴미디어 관련 업체도 새로운 기기를 홍보한다.

호남의 대표 정문지인 광주일보도 부스를 마련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광주일보 57년’이라는 주제로 4·19, 5·18, 5·18 명예회복, 국민의 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광주일보(전신인 구 전남일보, 구 전남매일 포함)의 지면을 깊이 있는 해설과 곁들여 전시한다. 또 광주일보가 배출한 이훈우, 안익섭, 정문경, 김중두 등 시사 만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상의 변화를 조망한다.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 온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나들이를 해보면 어떨까. 독자 여러분을 한국 신문 130년 역사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여론매체부팀 kjh8@kwangju.co.kr

시설

‘영산강 살리기’, 부작용 보완책 뒤따라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2억5천만m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4대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는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실행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오는 9월 동시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가 4대강 살리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은 광주·전남의 ‘엷살’인 영산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산강 살리기가 수질개선, 홍수 피해 방지, 지역문화와 주변산업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환경단체 등의 우려대로 자칫 영산강 살리기가 수질과 환경만 훼손하는 ‘개악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프로젝트에 따르면 영산강에 3천만m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보(泫)가 신설된다. 그러나 “수중보 설치로 수량은 늘 수 있으나 유속이 정체돼 수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분석 결과가 말해 주듯이 보 설치하는 오히려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108km에 이르는 자전길, 물 환경 테마파크 조성 등 강 주변 곳곳에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라고 본다.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산강 죽이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SI ‘추정환자’ 발생... 더 이상 확산 안된다

결국 한국도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멕시코발 돼지 인플루엔자(SI)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28일 SI 인체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 50대 여성이 ‘추정 환자’로 판명된 것이다. 국내 환자발생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 때 SI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멕시코나 미국 여행객 수만 해도 하루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은 여성이 ‘추정 환자’로 판명된 것과는 별도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확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 결과에 관계없이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심할 수 없다. 우선 인력과 전문장비가 부족하고 잠복기에 입국할 경우 열 검지기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이제 국내에도 SI 환자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추가 유입

을 철저히 막고 감시, 감독, 치료 체계를 원활히 가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오늘날 세계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물자가 매일 국경을 넘나드니 “제 나라만 철저히 단속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선 보건 당국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병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비축량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경부 차원의 대책기구도 즉각 구성해야 한다.

위험 지역을 여행한 사람 중 ‘의심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은 즉각 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병은 제 때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나 호들갑이 아니라 정부의 철통 방역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다.

無等鼓

지금의 초등학교 전신인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육(상스러운 말)표’란 게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일장기간 동안 똑같이 5장 혹은 10장의 육표를 받은 급우들이 상대가 한 번 육을 하면 한 장씩 빼앗는 식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표를 몽땅 잃게 되면 체벌을 받는 등 담임교사의 지도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극히 단순한 방식에서 나온 제재조치이지만, 상스러운 말을 줄여 급우들간 우정을 돈독하게 한 성과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추억거리가 아닐 수 없다.

광주에 이어 전남지역 115개 일선학교들도 다음달부터 학생들

는 등 학생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벌점을 매기고, 교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줘 상쇄하는 방식이다.

물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 도위험한 회복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상점이 많아지면 상품이나 선행상을 받는다. 교사가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각 학생의 상·벌점제를 입력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되기도 한다. 운영시스템이나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면학분위기를 높이는 의도에서 보면 육표나 그린마일리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전남지역 중·고교 각 1에게 체벌 대신 벌점을 주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제로 관리하는 상·벌점제의 다른 이름으로 보면 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

그린 마일리지



기고

박해구



요즘 광주의 도심 곳곳에 심어진 꽃잔디가 더욱 고운 빛깔을 뽐내며 많은 사람의 눈과 기분까지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 지난해 2013하계U대회 유치

를 위해 심기 시작한 꽃잔디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시민의 관심 속에 어느덧 뿌리를 내리며 우리 광주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광주는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기관·단체와 15만 명의 U대회봉사단원들이 FISU실사단 이동노선과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시내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 거리

업지역을 돌아보면 질서 있고 깨끗했던 거리는 각종 광고물과 전단지, 인도와 차도까지 침범한 풍선광고물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도심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내세운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나의 작은 실천,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

청소, 불법주차차 견도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광주시를 방문했던 FISU실사단들은 광주 시민들의 열정과 질서 정연한 모습,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경관 등에 만족스러워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올해에는 우리 광주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2009 세계 광역스포츠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전 국민과 세계인들의 시선이 광주에 쏠리게 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우선 매일 첫째 주요일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로 정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와 시내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쓰레기·불법주차차·노상적지물

에 대한 일제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질서 지키기가 우리 시민의 생활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신흥 상

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무질서행위가 발생했다 때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폐허가 되고 우리 사회는 걸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2008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광주가 2년 연속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광주의 열악한 교통기반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광주시민의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의식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진시민의 기본 덕목이며, 우리 서로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 1등 시민이 되는 것,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초질서를 지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작은 실천이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도장인장업자 지정으로 위조 인감 피해 줄여야

최근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을 위조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나쁜데 사용하는 사례가 줄줄이 소개됐다. 이제는 이 같은 부작용과 피해를 부르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혼란이 따를 것 같으면 인감도장을 만들 수 있는 도장 인장업자를 지역별로 지정을 하고, 동사

무소에 인감 신고나 변경시 국가지정 인감 제작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면 인감 위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감 대신 공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공증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공증을 좀 간편화시키고, 비용도 싸게 대충하하면 인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류공·광주시 남구 서1동

은펜칼럼

송민석



“이것 진짜 맛있게.” “오늘 바랍한 점 없이 날씨 진짜 좋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한 제주행 3등 객실 안은 시골벽적이었다. 모처럼 정감이 넘치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기분을 맛보고 싶은 동창부부 다섯 쌍의 제주도 여행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의 말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들인데도 절실히 사용하는 ‘진짜’라는 말투에 거부감이 들었다. 비좁은 선실 여기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70대 후반의 할머니들, 대화를 갖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언어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6·25 직후 허겁지겁 혼란 상황에서 사이버 상 이군인, 사이버 기자, 사이버 사장님들이 관철 무렵 남대문 시장에서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라는 간판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도 중국산이 우리의 식탁을 휩쓸고 있는 터라 시골장터나 노점상에서 ‘순 100% 한국산’이라는 미심쩍은 팻말을 자주 볼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회,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후진국이다. 어떤 발표에 따르면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라는 질

가짜가 판치는 세상

졸업한 듯싶은 등산복 차림의 젊은이들도 말끝마다 ‘진짜’라는 소리를 사용하여 불경적 의미가 ‘진짜’라는 말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으로’라는 부사적 용어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언어가 경음화 되고, 과장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각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평소 나이가 들고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장되지 않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학력과 무관하게 사회지도층조차도 절실히 ‘진짜’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언짢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진짜’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모두 ‘가짜’라는 말인가.

문에 스웨덴에서는 66%, 일본에서는 43%, 한국에서는 27%가 믿는다고 응답한 것을 보았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신의 벽이 높다는 증거다.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 신뢰를 담보해야 할 정치지도자부터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후진국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자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진짜’를 내세워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할 것 같다. 굳이 ‘진짜’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끝마다 ‘진짜’라는 말을 남용하여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여천고교장·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자칫 일본 좋은 일만 시킬수도

잇을 만 하면 주변에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나라는 물론 허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만약 한일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 전남 남해안이 물류 허브가 되는 게 아니라 종착역인 일본 오사카가 될 것이다. 그 증거로써 영프 해저터널 후 프랑스 서부 항구는 심각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이다. 대한 해협은 한때평양 조산대를 끼고 있어서 흑

시나 일어날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까? 일본만으로는 그쪽 기술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영프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터널은 지질구조가 다르다고 우려한다. 셋째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야망을 우리가 안방을 다 내주고 그들의 야욕을 달성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굳이 대륙진출과 물류허브를 꿈꾸던 일본과 해저터널은 건드릴 필요없이,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를 통해 뚫고 나갈 방안을 찾는 게 더 옳고 담담하다고 생각한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F A X 222-4267>	제 1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